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억의 오브제를 통한 이미지 운동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소 연

기억의 오브제를 통한
이미지 운동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소 연

인 준 서

김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무의식 안에 가라앉아있는 기억들이 자극을 통해 다시 의식으로 나오는 과정을 물속에 침전하는 설탕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한 본인 작업과 비교하고,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이미지의 운동 개념을 통해서 작업을 서술한다.

본인 작품에서 사탕은 기억을 떠올리는 자극으로서의 기억의 오브제이고 기억의 오브제는 과거의 이미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지속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본인은 단맛을 떠올리게 하는 사탕의 원재료인 설탕을 이용하여 과거와 연결된 대상과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설탕이라는 매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과정을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의 연결을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으로 설명하며 지속의 시간 속 잠재되어있는 과거의 순수기억들이 현재로 이동하는 운동성을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수면 아래로의 침전, 축 처진 그물망, 신체 표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설탕의 흔적들을 설명하려 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나의 신체에 자극을 주었던 설탕이라는 오브제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운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과 운동 개념으로 서술하게 되었다. 둘째, 설탕이 이미지를 부르는 과정과 그 속에 등장하는 움직임을 베르그송의 개념과 연관하여 작품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작업 진행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작품 형성 배경 ····· 2

1) 이미지로 연결한 시간 ····· 2

2) 이동하는 비물질적인 이미지 ····· 4

2. 작품 표현 방법 ····· 8

1) 사탕이 불러온 기억 ····· 8

2) 기억의 움직임 ····· 10

3. 작품분석 ····· 13

Ⅲ. 결론 ····· 3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candy

할머니 집에 있던 서랍, 설탕, 800×1150×500, 2016 ····· 14

【작품2】 위안을 주는 사람

종이 위에 설탕, 200×100×250, 2016 ····· 16

【작품3】 섬

양초, 석고, 설탕, 가변크기, 2017 ····· 18

【작품4】 덩어리

도면, 설탕, 400×400×1560, 2018 ····· 20

【작품5】 수면 아래

아크릴박스, 물, 설탕, 영상 8분, 2018 ····· 22

【작품6】 포화

각파이프, 스판덱스, 설탕, 500×260×1400, 2018 ····· 24

【작품7】 기억의 무게추

석고와 양초로 캐스팅 된 할머니의 발, 그물,

가변설치, 2019 ····· 26

【작품8】 파이프

파이프, '탕'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2000×1200×1600, 2018 ·· 28

【작품9】 지표의 궤적

MDF, 매직, 석고, 350×350×2100, 2020 ····· 30

【작품10】 초점까지의 거리

MDF, 스테인레스 봉, 석고, 600×600×200, 2020 ····· 32

Ⅰ. 서 론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수많은 기억 속에서 슬픔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아를 확립해 나아갈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억과 상처를 은유하는 사탕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사탕의 원재료인 설탕이 수조에 침전되고 그 침전된 것을 다시 꺼내서 전시하거나 발이나 손과 같은 신체 일부를 형상으로 만든 조각 내부에 설탕이 파고 들어가는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운동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인은 한때 관계를 맺었던, 지금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주목하였고, 그 대상은 할머니에게 받은 사탕에서 출발한다. 어렸을 적 할머니는 사탕을 비닐봉지에 한가득 주셨고 그 사탕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강렬한 자극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극은 할머니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주었고 어렸을 적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자극을 통해 순간적으로 파악한 존재를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사탕은 과거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자극체로서 무의식 속 이미지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이때 떠올려진 과거의 이미지는 끊어져 있던 시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을 작품 속 사탕의 원재료인 설탕을 사용해 수면 아래로 쌓이는 과정과 그것을 꺼내 올리는 과정 혹은 설탕으로 달라붙은 사물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설탕의 추상적인 운동, 그물망의 쳐짐으로 알 수 있는 구조적인 운동 과정을 현재의 감각으로 인해 내면에 가

라앉아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와 관련된 감정이 파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베르그송의 운동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과 운동 개념을 연구해 서술하고, 본인 작품의 의미와 제작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 형성배경

1) 이미지로 연결된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며,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태에서 상태로 이행한다. 즉 우리는 감각, 감정, 기억과 같은 상태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1)]

그리고 감각, 감정, 기억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있는 기억은 어떤 자극을 통해 떠오르게 되고, 이 자극은 단순히 기억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감각을 작용시키고 감정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러한 기억은 내면에 가라앉아있다가 순간이 담겨있는 물질과 만나는 우연한 순간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다시 만나는 순간은 단순히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촉각, 후각, 미각 등 여러 감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감정은 고요한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고 잠시 잊고 있던 한 부분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은 감각을 통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도 함께 불러오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탕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1)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20

는 할머니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항상 사탕을 봉지에 담아 주셨고 받은 사탕은 집 서랍 한 켠에 보관해 꺼내 먹고는 했다. 서랍 속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먹음으로써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고, 파편화되어 남아있는 기억 중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 기억을 통해 사탕은 본인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인 매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사탕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감각이 자극되고 이 감각은 할머니를 향한 감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베르그송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미지'[2]는 물질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파악한 것들을 말하고 이 이미지는 하나의 자극으로서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가장 기초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행위로, 우리 신체에 어떠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자극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설탕이 본인의 신체와 감각적으로 맞닿았을 때 자극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자극을 통해 과거 기억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었다. 현재 나에게 끊어졌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은 사탕이라는 매체가 주는 자극을 통해 과거의 순간이 현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베르그송의 지속[3]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베

---

2) 베르그손 철학의 전체에서 볼 때 이미지는 지속의 개념으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베르그손의 지속은 무엇보다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질적 변화는 우주 전체에서 나타나는 존재방식이다. 그것은 끝없는 파동적 흐름 속에서 각 영역마다 고유한 리듬을 보여준다. 우리의 지각에 나타난 구체적 특성들은 이 연속적인 질적 변화를 우리 방식으로 순간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바로 이 순간적으로 파악된 존재자를 베르그손은 이미지라 부른다.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59

3) 지속은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시간에 관한 개념이다. 베르그송은 "흐르는 시간만이 진정한 시간이며 흘러간 시간은 다름 아닌 공간이다. 흘러간 시간은 양적이고 변별적인 공간적 병존이다. 흐르는 시간은 질적이고 상호 침투적인 시간적 계기이다. 흐르는 시간은 지속이며, 의식은 이 지속이다." 라고 했다.
https://blog.naver.com/leespider/150185375092

르그송에 의하면 지속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연속적인 지반을 만들어내며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속은 과거의 연속적인 진행이고, 이때 과거는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축적되어 보존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기억, 즉 의식에 의해 연결된 시간이고,[4] 지속은 무의식 속에 잠식되어있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다시 끌어냄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꺼내 올려진 과거를 베르그송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우리의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연결된 대상의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탕은 자극을 주는 오브제로 이 오브제가 주는 자극을 통해 지속의 시간 속에서 현실과 기억이 관계를 맺는 것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이동하는 비물질적인 이미지

앞서 말한 것을 정리하자면, 본인은 사탕이라는 자극을 주는 오브제를 통해 무의식 안에 가라앉아있던 기억을 끌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속이 생겨나고 이러한 지속은 이미지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지속의 시간 속 자극이 필요한 이유는 무의식 안으로 수많은 기억이 가라앉아 우리의 추억이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은 무의식 속 가라앉아있는 기억에 대해 '잠재성'[5]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우리의 과거 기억은 현재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이라고 하고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와 섞이

4)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p.95-96

5) 지속은 질적 변화의 연속이고, 과거를 보존하면서 현재로 연장하는 기억의 운동이며, 자기 자신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과 달라지는 실재이다. 물질과 정신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질적 다양체로서의 지속 안에서 사유할 때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 본질의 근원이 잠재성인 것이다. https://blog.naver.com/bisanghara/120182132199

게 되면서 우리의 지각을 다양하게 구현하고 완성 시킨다고 이야기 한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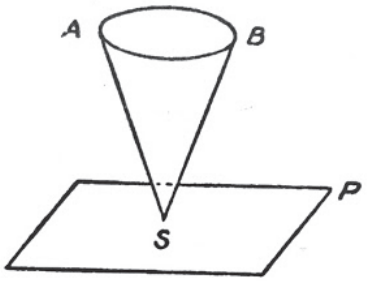
그리고 베르그송은 기억을 두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신체의 반복된 노력을 통해 습관으로 형성된 '습관-기억[7)]'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자극이나 분위기를 이미지 형태로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표상적인 의미의 '이미지-기억[8)]'으로 나누고 있다. 이미지-기억은 습관-기억처럼 물질적 특징이 아닌 정신 속에 존재하게 되고 이런 기억은 이미지로 떠올려지기 전에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를 '순수기억[9)]' 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과거 전체를 의미하는 순수기억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다가 자극을 주는 과거와 연결된 오브제에 의해 이미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수기억은 이미지들이 무의식 안으로 가라앉으면서 아래로 이동하는 상태이고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설탕 침전물들을 떠올릴 수 있다. 뜨거운 설탕이 차가운 물과 만나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러한 현상을 베르그송의 순수기억이 쌓이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침전된 순수기억 속에는 단순한 기억뿐만 아니라 촉감을 강하게 자극했던 경험의 기억도 존재한다. 뜨거운 설탕으로 작업을 하는 도중 본인의 살 위에 뜨거운 설탕 용액이 떨어져 신체와 맞닿게 되는데, 그때 피부 속으로 뜨거움은 전이됐고 피부 표면에는 흔적을 남기게 됐다. 베르그

6) 앙리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88
7) 습관 기억은 반복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기억으로, 노래를 외우고 춤을 익히는 이러한 운동 능력이나 언어능력과 같이 반복된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몸의 기억을 말한다.
8) 이미지-기억은 어떠한 노력 없이도 몸에 보존되어 있다가 현재의 자극이나 요청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떠오르는 기억을 말한다.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바로 이미지기억과 관련이 있다.
9) 베르그송에게 기억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시간 속에서 개인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축적된 것으로서, 반복될 수 없는 매순간 일회적인 사건들이 흘러가며 우리 과거 전체를 구성하게 되고 베르그송은 이를 '순수기억'이라고 부른다. 베르그송은 이미지 기억의 총합을 순수 기억이라 불렀고, 진정한 기억은 습관 기억이 아닌 순수 기억이라고 했다, 장우성, 베르그송의 이미지론으로 본 후지모토 소우 건축존재방식의 특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pp.190-202

송에게 신체는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반응을 운동으로 나타내는 용도로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기억을 감각의 덩어리로 보고 있고 이 감각을 통해 순수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와 연결된 감정까지도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가라앉는 하강과 떠오르는 상승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을 보면 수면으로 가라앉거나, 좌표 속에서 이동한 흔적이 남거나, 그물망이 늘어나는 등 운동성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을 기억의 운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지속시간에서 운동이란 사물의 움직임이 아닌 진행을 뜻하는 것으로 운동은 정신의 종합이며 심적인, 따라서 비연장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10] 앞서 다뤘던 물질의 자극으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운동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베르그송은 이러한 반응을 역원뿔 도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르그송의 역원뿔 도식>

이 도식은 순수기억의 존재와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 보이는 원뿔 SAB는 축적되어있는 우리의 기억을 나타내는데 AB는 과거

10) 앙리 베르그송,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143

속에 머물러있는 기억으로 우리가 살면서 체험한 모든 개인의 삶 전체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존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고, S는 신체의 이미지로 매번 새로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현재를 뜻하고 있다. 바닥에 존재하는 P는 '우주에 대한 나의 현실적 표상의 움직이는 평면'[11]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로서 매 순간 마주치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P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매 순간 작용하고 반작용하게 되고 수직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안에 있는 기억들이 현재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다.

그런데 본인은 이 도식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에 접근하여 보았다. 본인은 P를 바닥에 가라앉아 널리 깔린 자극체들이고 본인의 신체 S가 이곳에 맞닿았을 때 AB 방향으로 무수한 기억이 끄집어 올려지는 과정으로 이 도식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관점에서는 사탕이 몸으로 침투해가는 과정, 물속에 가라앉는 과정, 그물망 아래로 설탕이 떨어져 딱딱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가라앉고 다시 떠올려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공간 안에서 가라앉아있는 설탕들과 수직으로 세워진 설탕 덩어리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기억에 대한 전체 과정을 다시 역전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작품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작품 안으로 관찰자가 들어갔을 때 그 안은 물리적인 공간이자 관객에게 감각과 기억을 전이하는 과정까지도 볼 수 있다.

11)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222

2. 작품표현 방법

1) 사탕이 불러온 기억

베르그송의 말에 따르면, 어릴 적 할머니가 주신 사탕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고 사탕을 사용한 첫 작품인 【candy】에서 이를 표현하였다. 할머니 집에서 가지고 온 쌀 뒤주에 사탕을 가득 부었고 관객들은 사탕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느껴지는 달콤함으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마주치게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감각을 통해 감정을 마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사탕으로 이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해보기 시작했다.

설탕 그림이라 부를 수 있는 【위안을 주는 사람】은 본인의 노스텔직한 기록물에 사탕의 원재료인 설탕과 물, 물엿을 1:0.5:0.3 비율로 만든 설탕 용액을 부어 설탕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고 액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처럼 어렸을 적 할머니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나 상황을 텍스트로 적었고 이 상황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글자 위에 뜨거운 설탕 용액을 부었다. 시간이 지나 설탕이 굳으면서 우그러지는 종이 자체를 액자에 넣어 본인의 기억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표현했다면, 객관적인 시간을 다룬 작품도 있다. 【위로】는 위의 과정을 통해 받은 위로를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고자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작은 기사들을 신문에서 골라 그 위에 설탕 용액을 부었고 굳는 사탕 덩어리를 그대로 떼어 냈다. 무작위로 만들어진 덩어리들은 대륙을 닮아 있었고 액자에 배치되었을 때 마치 지도처럼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인은 설탕으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표현해왔는데 시간이 지

나 당뇨를 앓고 있던 할머니의 합병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혈관이 막혀 발가락을 절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당시 그저 달콤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설탕에 씁쓸한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고 가족력으로 인하여 언제 겪게 될지 모를 당뇨의 위험함에 대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또한, 설탕을 작업하는 도중에 피부에 뜨거운 설탕을 부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보았을 때 앞서 말한 할머니의 질병과 설탕의 뜨거움이 피부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인해 설탕에 대한 감정이 달콤하면서 동시에 쌉싸름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이를 【섬】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발, 발뒤꿈치, 무릎, 손, 팔목, 등, 어깨, 허리, 팔꿈치, 엉덩이 등을 석고나 양초로 캐스팅하고 그 과정에서 까맣게 타버린 설탕 용액을 부어 함께 캐스팅하면서 몸 안에 흐르고 있을 달콤한 혈액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캐스팅된 조각 안에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갈색빛의 핏줄이 만들어져 핏줄을 타고 단 액체가 흐르는 것을 표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탕 용액으로 인해 제대로 굳어버리지 못한 부분은 마치 인체가 썩어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할머니의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발끝까지 혈액이 가지 못해 발가락을 절단하는 상황을 본 후로 할머니의 고통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에 대한 연민과 본인 또한 유전으로 인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 생기는 불안함을 작업으로 옮기게 되었고 여기서 등장하는 분리된 조각은 할머니에 대한 과거의 상실과 미래에 있을 본인의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언캐니함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속 결여된 대상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본인에게 설탕은 자극제와도 같은 물질이 되었고 현재와 맞닿을 때 현재의 감정에 따라서 이미지가 그대로 나올 수도 혹은 변형되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기억의 움직임

앞서 보았듯 설탕은 본인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설탕 뿐만 아니라 과거와 연결된 대상에서도 자극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의 아버지는 설계도면을 그리시는 분이라 집에는 건축도면이 높게 쌓여있었고 우리는 이 도면을 이면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면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건축도면은 자연스럽게 일상과 맞닿아있는 오브제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도면】에서는 거칠게 4등분으로 찢겨진 도면들을 끈덕거리는 설탕 용액을 풀처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붙여 조각들끼리 중심을 잡아가면서 탑처럼 쌓여 본인의 키와 비슷한 158cm의 높은 기둥을 쌓게 되었다. 이 작품은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쌓인 기억으로 자아가 형성되어 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의 키에 맞춰 높이를 지정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베르그송의 역원뿔 도식에서 말했던 기억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파이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파이프 속 '탕'하는 소리로 인해 순간의 기억을 떠오르게 되었고 이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은 파이프로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 곳곳에는 스피커를 넣어 한쪽에서 '탕'하는 소리가 들리면 옆에 있는 다음 스피커로 소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서 위에서 나는 소리를 아래에서 듣고 그것에 자극을 받아 기억을 환기하게 되어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했지만, 작품에서는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소리가 이동하고 있고 관찰자는 작품 옆에서 자극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작품에서 보여지는 수직, 수평적인 움직임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관찰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감각과 기억이 전이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그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얀 그물망에는 석고와

설탕 용액을 결합해서 캐스팅한 발 조각들을 걸었는데 조각마다 쳐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매번 달라지는 석고와 설탕의 양으로 발의 무게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백색 그물망에 걸어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그물의 쳐짐의 정도로 기억의 무게를 표현하였고 마치 나무 사이에 걸린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작품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또는 지나가는 관객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움직임으로 이 그물도 흔들리게 표현되어 진다.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발 조각으로 인해 그물망은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관객들이 그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서 이 작품은 수평의 공간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본인은 작품을 통해 기억을 표현하였는데 베르그송의 말에 따르면 시간 속에서 만난 기억은 무의식 속에 비물질적인 상태로 잠재되어 순수기억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 본인은 이 과정을 작품에서 사탕의 원재료인 설탕은 사용해 【수면】이라는 작품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설탕 용액이 물과 접촉되면서 응고되는 과정을 담았는데 물에 수직 운동을 통해 들어간 설탕은 굳으면서 기둥을 쌓아가고 시간이 지나 사탕이 물에 녹으면서 쌓았던 기둥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둥이 쌓이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이 작품에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이라고 불리는 과거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저의 바다 같은 무의식 깊숙이 순수기억이 드넓게 쌓이고 그 속에서 서로 뭉치고 해체되면서 잠재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았을 때 과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설탕이라는 물질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과 맞닿고 그것이 순수기억으로 쌓이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에 닿아 바로 딱딱해져 바닥에 쌓이게 되는 순수형태의 침전물들을 꺼내서 그 자체를 【찌꺼기】에서 보여주었다. 이 찌꺼기는 앞에서 언급한 무의식 속 순수기

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기억이 이미지로 떠올려지기 전에는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본인은 순간적으로 굳어진 설탕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으며, 감각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며 감정을 같이 불러오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진 기억으로 연결된 시간은 경계를 갖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앞서 보여준 기억에 대한 작품으로 인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현재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작품에 담게 되었다. 아빠의 도면처럼 일정한 규격에 맞춰 육면체에 선이 그어져 있는 【지표의 궤적】에서는 피부에 설탕의 뜨거움이 전이돼 흔적을 남긴 것처럼 지속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흔적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번 작품은 앞서 등장한 그물망을 좌표 형식으로 평면화하였는데, 그물망에서 기억의 덩어리가 걸려있었다면 이 좌표에는 현재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서술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을 작품에 담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초점까지의 거리】에서도 원 형태로 만든 스테인레스 봉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사각뿔 조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때 시각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현재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담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감각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도 같이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본인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3. 작품 분석

【작품 1】 candy

【작품 1】 candy

연도: 2016
크기: 800×1150×500
재료: 할머니 집에 있던 서랍, 사탕

제작방법

1. 서랍에 사탕을 가득 담는다.
2. 관객들이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간다.

작품설명

어렸을 적 할머니의 집에는 사탕이 많았고 집에 갈 때마다 사탕을 봉지 한가득 담아 주시곤 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집 서랍 한 켠에 보관하였고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먹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와의 추억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었다.

작품은 실제 할머니 집에 있었던 전면에 난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진 장식이 있는 쌀 뒤주에 사탕을 채워 완성한 설치작업이다. 이 뒤주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옅은 갈색을 띄고 크기는 일반인 신장의 허리 높이까지 온다. 사탕은 다양한 색으로 낱개 포장이 되어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판매용 제품을 사용한 것이다. 이 사탕을 뒤주 속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산처럼 수북이 쌓았다.

관객들이 이 사탕을 소비해야 완성되는 작업이다. 결국 전시장에는 빈 뒤주만 남게 된다.

【작품 2】 위안을 주는 사람

【작품 2】 위안을 주는 사람

연도: 2016
크기: 200×100×250
재료: 종이 위에 설탕, 액자

제작방법

1.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적혀있는 종이에 설탕용액을 부어 굳힌다.
2. 용액이 굳어지면서 글씨는 번지고 종이는 찌그러지게 된다.

작품설명

액자에 넣은 설탕 그림 설치 작업이다. 그림의 바탕이 되는 종이는 나와 할머니와의 대화를 재구성한 기록이다.

이제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살아계셨을 당시 나누었던 대화들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놓고는 했었는데 이런 대화 내용을 A4 용지 절반 크기로 출력하였다. 메모장에 적힌 글들은 일상의 대화들로, 평범한 듯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음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글들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대화를 잊지 않고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이 종이 위에 설탕 용액(설텅, 물, 물엿을 1: 0.5: 0.3 비율로 직접 제작)을 붓고, 식은 뒤에 굳어진 이미지를 액자에 넣은 작업이다. 메모들이 설탕 용액으로 덮혀져 있는 이 작품은 설탕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떠오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설탕이 식어가면서 종이의 모양은 조금씩 일그러지게 된다.

총 10~20개로 구성된 설탕 그림을 벽에 일렬로 설치하거나 가로, 세로 방향을 바꾸어 율동감을 준다. 관람객이 마주하게 되는 이미지는 설탕 용액으로 덮인 나의 노스텔직한 기록이다.

【작품 3】 섬

【작품 3】 섬

연도: 2017
크기: 가변크기
재료: 양초, 석고, 설탕

제작방법

1. 석고붕대로 본인의 몸 곳곳을 본 뜬다.
2. 양초나 석고에 뜨겁게 끓여놓은 설탕을 부어 같이 캐스팅한다.

작품설명

본인의 신체를 설탕용액과 석고로 캐스팅한 설치작업이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셨다.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발끝까지 혈액이 가지 못해 발가락을 절단하는 상황을 본 후로 할머니의 고통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에 대한 연민과 유전으로 인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 생기는 불안함을 작업으로 옮기게 되었다.

작품에는 본인의 발, 발 뒤꿈치, 무릎, 손, 팔목, 등, 어깨, 허리, 발꿈치, 엉덩이 등을 석고나 양초로 캐스팅하고 그 과정에서 오래 끓여 까맣게 타버린 설탕용액을 부어 함께 캐스팅하면서 몸 안에 흐르고 있을 달콤한 혈액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설탕용액으로 인해 양초나 석고가 제대로 굳어버리지 못해 떨어져나간 부분은 마치 인체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품 4】 덩어리

【작품 4】 덩어리

연도: 2018
크기: 400×400×1560
재료: 도면, 설탕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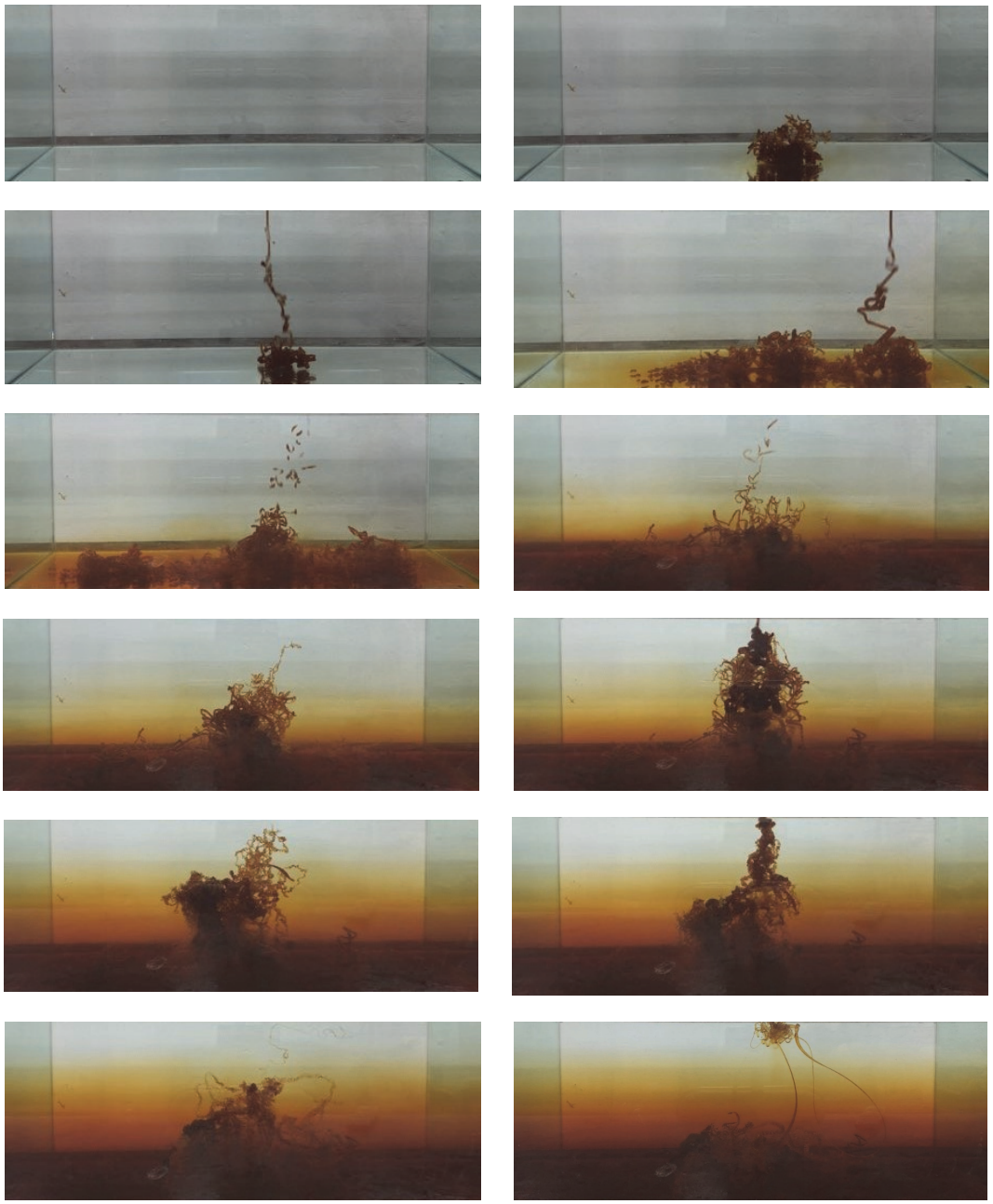
1. B4사이즈의 도면을 임의로 4등분 하여 손으로 찢어 나눈다.
2. 설탕과 물, 물엿을 넣고 끓인다.
3. 도면과 도면 사이에 풀처럼 끈덕해진 설탕용액을 붓는다.
4. 도면을 설탕용액으로 붙여 본인의 키 높이만큼 쌓는다.

작품설명

종이와 설탕으로 엉겨 붙어있는 원기둥 형태의 설치작업이다. 마치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석순과 유사한 형태이고 본인의 키 높이만큼 올라오는 갈색의 원기둥이다.

설계도면을 그리는 아버지로 인해서 집에는 항상 B4사이즈의 도면이 많이 있었고 집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면지가 되었다. 이 도면은 어렸을 적부터 오래도록 봐왔던 오브제였기에 기억의 층위를 담아내기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작업이 나오게 되었다.

우선 도면을 손으로 거칠게 4등분으로 찢어 조각을 만들었고 그 사이를 뜨겁고 끈덕한 설탕용액이 풀 역할을 하면서 서로서로 중심을 잡아 가며 탑을 쌓게 되는 것이다.



【작품 5】 수면 아래

【작품 5】 수면 아래

연도: 2018
크기: 영상
재료: 아크릴박스, 물, 설탕

제작방법

1. 1000×600×600(mm) 크기의 아크릴 박스가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을 가득 채운다.
2. 설탕과 물, 물엿을 1:0.5:0.3의 비율로 뜨겁고 끈덕한 설탕용액을 만든다.
3. 뜨거운 설탕용액을 한국자씩 퍼서 물이 담긴 아크릴 박스에 천천히 붓는다.

작품설명

설탕기둥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작업이다.

영상에는 물이 담긴 직사각형 모양의 수조에 설탕용액을 한 국자의 비율로 시간차를 줘서 떨어트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설탕과 물, 물엿을 1:0.5:0.3 비율로 넣어 저어주며 계속 끓이면 사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뜨거운 사탕이 차가운 물과 접촉하면 바로 굳어버리는 성질을 이용해 물에 사탕을 부어 스스로 기둥을 쌓아가고 시간이 지나 사탕이 물에 녹으면서 쌓여있던 기둥은 무너지고 새로운 기둥이 쎃이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본인에게 따뜻하고 달콤한 이미지로 존재했던 사탕이 어떠한 사건으로 기존의 이미지와 다르게 변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 작업을 통해 현재에서 마주친 이미지들이 수면 아래 무의식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 속에서 이미지가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이미지의 기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담게 되었다.

【작품 6】 포화

【작품 6】 포화

연도: 2018
크기: 500×260×1400
재료: 각 파이프, 스판덱스, 설탕

제작방법

1. 각파이프로 좌대를 제작한다.
2. 좌대 위쪽에 살색의 스판덱스를 붙인다.
3. 설탕과 물, 물엿을 1:0.5:0.3의 비율로 뜨겁고 끈덕한 설탕용액을 만든다.
4. 설탕용액을 한국자씩 떠서 스판덱스에 부어 구멍 사이로 설탕용액이 세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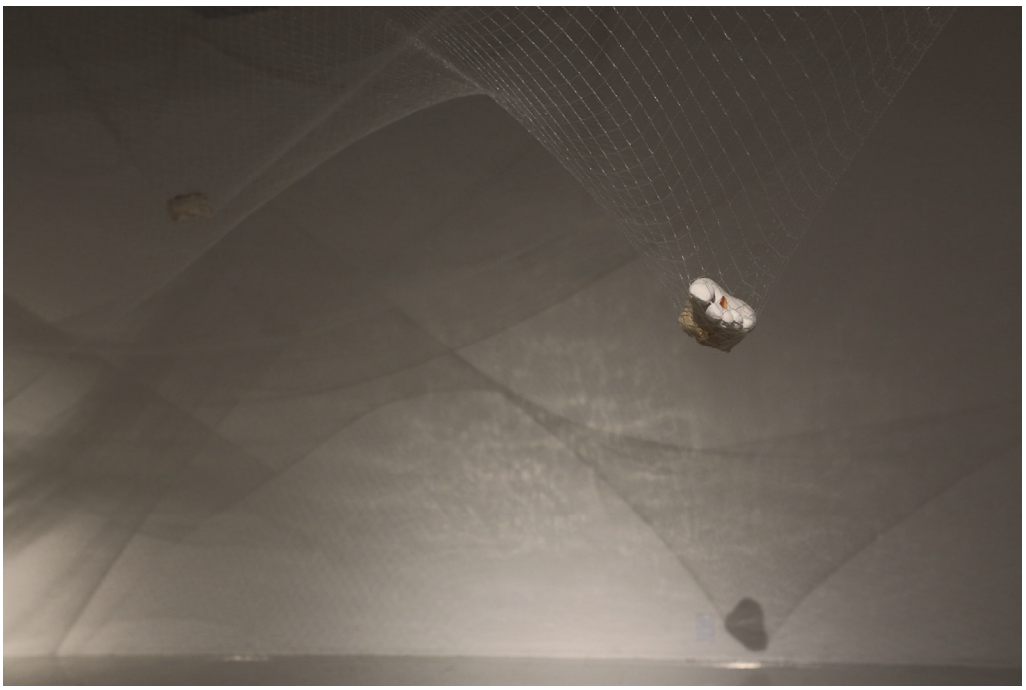
작품설명

기억의 운동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다. 위 영상작업과 마찬가지로 수면 아래로 기억이 들어가면서 변형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성을 요구하는 설치작업이다.

각파이프로 만든 어깨높이의 직육면체 구조물 윗면에 스타킹처럼 보이는 살색 스판덱스 소재의 천을 느슨하게 씌운 후 위에 설탕용액을 부었다. 직육면체 구조물이 장방형이라 천에서 흘러내리는 설탕용액들이 불규칙하게 쌓인다. 이때 설탕용액은 공기와 맞닿으면서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천 구멍 사이로 떨어지면서 공중과 바닥에는 얇은 선들로 이루어진 흑갈색 드로잉이 남게 된다.

이 작품에서 기억이 무의식으로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억이 쌓이게 되면서 기억이 변형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7】 기억의 무게추

【작품 7】 기억의 무게추

연도: 2019
크기: 가변설치
재료: 석고와 양초로 캐스팅 된 할머니의 발, 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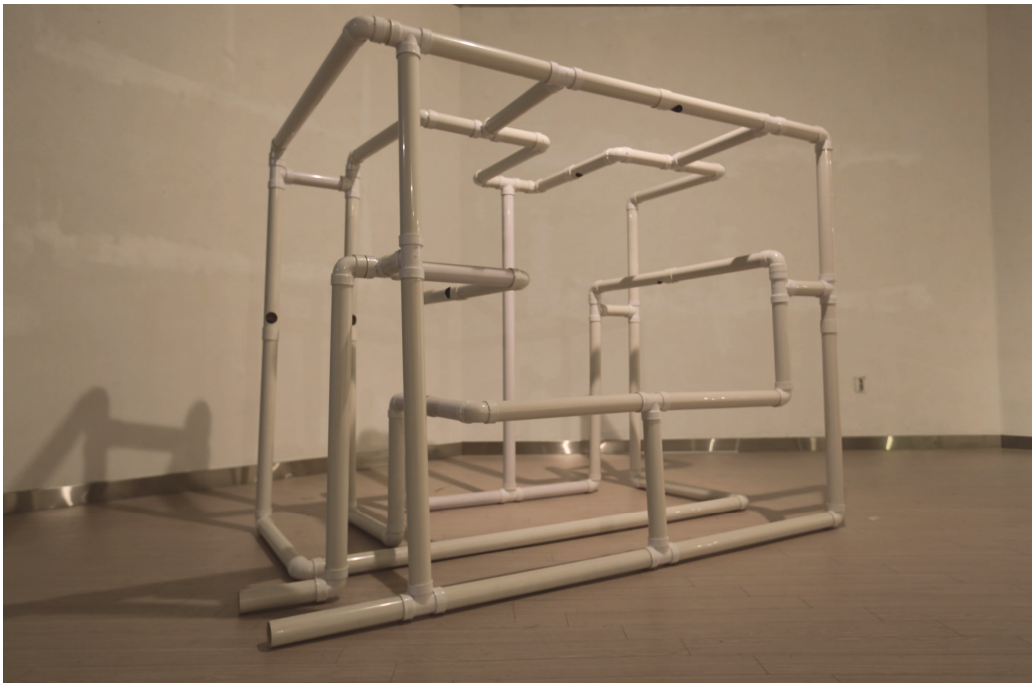
제작방법

1. 할머니의 발을 석고와 설탕용액을 혼합하여 캐스팅한다.
2. 캐스팅 된 발을 10개 더 캐스팅한다.
3. 천장에 하얀 그물을 설치한다.
4. 그물 사이사이에 발 오브제가 걸리게 된다.

작품설명

천장에 설치한 백색 방조망에 석고와 설탕으로 캐스팅 된 발 오브제를 함께 설치하였고 이는 마치 끈덕한 거미줄에 발들이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작품에 필요한 발을 캐스팅할 때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그물의 처짐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마치 기억의 무게에 따라 그물의 쳐짐으로 인한 등고선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화이트 박스에 설치되기 때문에 작품에 조명이 비춰졌을 때 작품과 벽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



【작품 8】 파이프

【작품 8】 파이프

연도: 2018
크기: 2000×1200×1600
재료: 파이프, '탕'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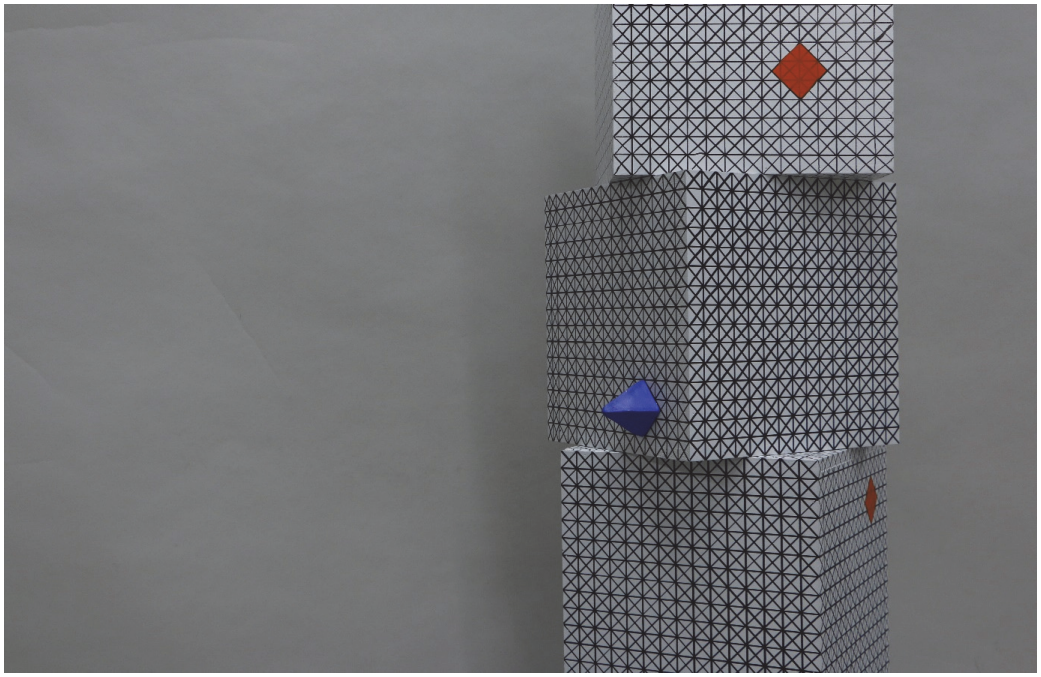
1. 지름 10cm의 파이프 곳곳에 구멍을 뚫는다
2. 파이프의 구조를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한 형태로 설치한다.
3. 구멍이 뚫린 파이프 속으로 '탕'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를 넣는다.
4. 스피커는 동시에 들리는 것이 아닌 순서대로 사운드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설명

우연히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 속에서 '탕' 하고 공기가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본인은 이 소리로 인해 잠시 잊고 있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때 현재의 감각으로 기억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전시장 바닥에 지름 10cm 규격의 PVC 수도 파이프로 만든 구조물이다.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이프를 규칙성 없는 형태로 꼬아서 설치하였고 파이프 안 곳곳에 8개의 스피커를 넣어 소리가 울린다.

파이프 안 압력으로 인해 공기가 터지며 들리는 '탕' 하는 소리를 녹음한 뒤, 그 소리의 구간을 임의로 쪼개고 8개의 스피커에 나누어 담아 재생시켰다. 8개의 소리는 겹치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들리기 때문에 소리의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소리의 흐름은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관객은 작품 옆에 서서 자극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작품 9】 지표의 궤적

【작품 9】 지표의 궤적

연도: 2020
크기: 350×350×2100
재료: MDF로 제작한 박스, 매직, 석고

제작방법

1. MDF로 360×360×360mm 사이즈의 정육면체를 6개 만든다.
2. 6개의 박스에 매직으로 격자무늬를 그린다.
3. 석고로 마름모 형태의 사각뿔을 만든 후 아크릴로 채색한다.
4. 아크릴을 사용해 마름모 석고조각과 같은 크기로 박스에 흔적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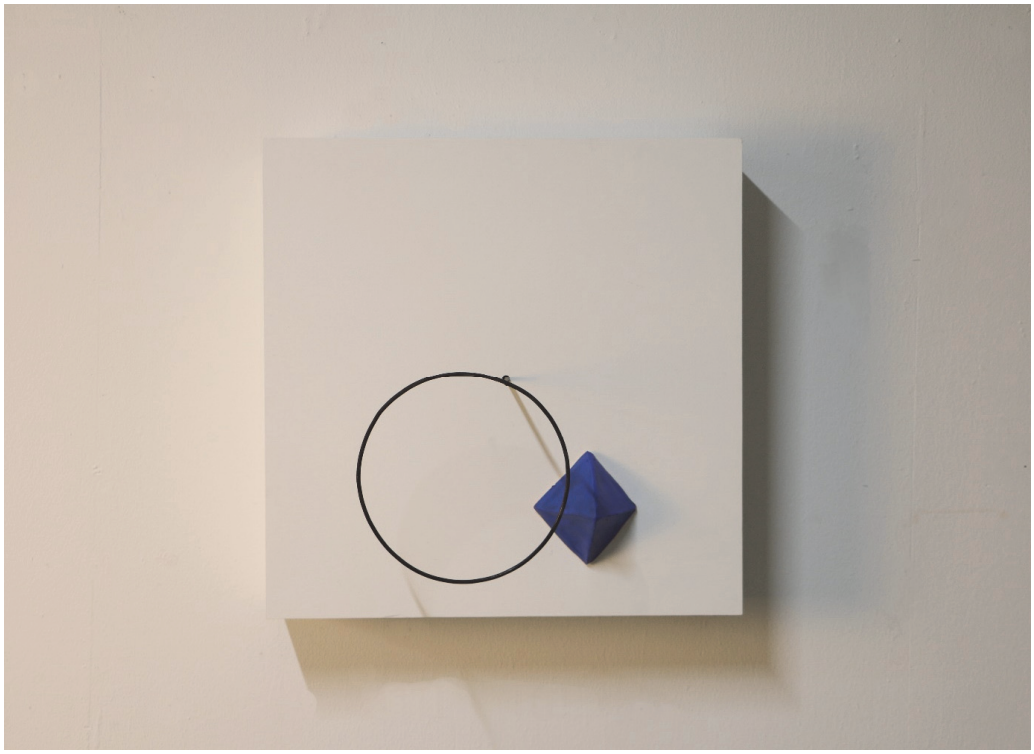
작품설명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 현재의 흔적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우리는 지속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각자의 흔적을 남겨가며 스스로의 자아를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MDF합판으로 36cm의 정육면체에 하얀색 페인트를 발라 6개의 동일한 화이트 큐브를 만들었다. 박스에는 본인이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낙서를 매직으로 2cm 간격을 기준으로 그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직선은 지속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는 마름모 형태의 석고조각과 이것의 흔적이 표시되어 있다.

6개의 박스는 불규칙하게 쌓이게 되고 관객들은 박스의 사방을 보면서 흔적을 확인하게 된다.



【작품 10】 초점까지의 거리

【작품 10】 초점까지의 거리

연도: 2020
크기: 600×600×200
재료: MDF로 제작한 박스, 스테인레스 봉, 석고

제작방법

1. MDF로 600×600×200의 박스를 제작한 뒤 하얀색 페인트로 채색한다.
2. 석고로 사각뿔 형태를 만든 후 파란색 아크릴로 채색한다.
3. 스테인레스 봉으로 원이 달린 봉을 만든다.
4. 박스 안에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모터를 넣고 봉과 연결한다.

작품설명

지속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만 바라볼 뿐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를 직시하고 인지해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현재를 바라보게끔 하였으며 이를 초점으로 나타내었다.

600×600×200mm 박스를 MDF합판으로 제작한 뒤에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고 안에는 10초에 한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터를 넣어 원으로 만든 스테인레스 봉을 연결하였다. 박스 겉면에는 동그라미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중 원에 사각뿔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 현재에 존재하는 순간을 지각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품 속 등장하는 설탕이라는 물질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의 오브제로 작용하고 이 자극을 통해 무의식 속 기억이 올라오는 운동 과정을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운동 개념으로 증명하였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 시간 속에서 기억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물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일상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과 그 사물과 관련된 기억들이 모여 개인의 자아를 만든다. 본인 작품에는 할머니, 설탕, 도면 등 시간 속에서 만난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마주했을 때 강렬한 자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자극을 통해 내면에 있는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는데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을 통해 지속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무수히 쌓여 잠재된 순수기억이 현재 지각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고 신체에 감각적인 자극이 닿는 순간으로 인해 내면에 가라앉아있던 감정이 파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베르그송의 운동 개념을 통해 알아보고 역 원뿔 도식으로 확인해보았다.

이렇게 지속의 시간 속에서 기억이 쌓여 무의식에 가라앉아있게 되고 현재의 감각을 통해 기억과 그에 관련된 감정이 함께 떠올려지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운동성을 함께 해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슬픔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통해 현재의 자아를 확립해나갈 수 있으며 일상에서 잊고 있던 무언

가를 떠올림으로써 그 안에서 텅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속 안에 잠식되어있는 기억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앙리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교보문고, 1991
·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 앙리 베르그송,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쌤앤파커스, 2019
· 진교훈, 『인간과 현대적 삶』, 철학과현실사, 2003
· 송영진, 『베르그송의 생명과 정신의 형이상학』, 서광사, 2001

《참고논문》

· 정선희, 「순간 속의 만남: 감정의 환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방지영, 「사진매체를 활용한 시간성 표현 연구: 객관적, 주관적 시간성과 지속, 지금의 시간성을 표현한 본인 작품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김아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의 조형적 활용과 그 지표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ABSTRACT

A Study on Image Motion Representation through Memory Object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Kim, So Ye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process by which memories sunk in unconsciousness come back to consciousness through stimulation with sugar deposited in water and the form it creates, and describes the work through Bergson's image and the motion concept of the image.

The candy received from the grandmother acts as an object as a stimulus to recall memories, and it acts as a medium to connect the memories of the past that were cut off to me. Therefore, I can combine sugar, a raw material for candy that reminds me of sweetness, with objects connected to the past, and look at the process of past and present through the media called sugar.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can be explained by Bergson's concept of continuation, which describes memory as a movement in time, which describes the sedimentation under the

surface of the work, a sagging mesh, and traces of sugar digging inward from the surface of the body.

In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of his work.

In Chapter 2, the main body first described how the object sugar, which stimulated my body, evokes memories and exercises in Bergson's image and motor concepts. Second, the process of sugar calling images and the movements that appear in them are associated with Bergson's concept, indicating how to express the work.

The conclusion of Chapter 3 describes the future direction of work in organizing this paper.

인 준 서

김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노 수 한 (인)

심 사 위 원 정 재 주 (인)

심 사 위 원 장 숙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